

## 2018년 6월 16일 “(성경의 큰 숲 보기 16) 역대기: 그 날들의 사건들”(대하 7:12-20)

### <도입>

역대기는 역대 왕들의 기록(역대지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는 ‘그날들의 사건들’이라는 제목을 갖습니다. 열왕기서와 비슷한 이야기를 왜 다시 성경에 중복시켰는지를 살피겠습니다.

### [1] 역대기는 왜 쓰여졌는가?

열왕기서가 바벨로니아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쓰여졌다면, 역대기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쓰여졌습니다(대하 36:22-23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 고레스는 식민 치하에 있는 민족들의 자치를 중시했습니다.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역사하여 이스라엘은 1,2,3 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 후에 그들은 ‘이제 땅의 유업을 다시 되찾았으니, 백성들도 불어나고, 주권도 되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특히 포로에서 1 차로 돌아온 무리의 리더는 스룹 바벨, 다윗 왕조의 후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영원한 다윗 왕조가 성취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나면서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사주하는 세력들의 방해에 의해 16년간 성전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BC516(귀환 후 20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적자들로 인한 계속된 역경 속에서 실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 차 포로귀환 때에는 학사 에스라가, 3 차 때엔 느헤미야가 사람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귀환 시기 70-80년간 성전/성벽을 짓는 고생 끝에 백성들은 의문과 불평을 가졌습니다.

과연 주님의 언약대로 회복될 것인가?

과연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시는가?

성전을 지었는데도 경제/정치적 변화는 없고 상황은 불변.

이런 생각의 지배는 말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말 1: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말 2:17 참고)

이들의 신앙은 부정적, 냉소적으로 변하여 영적 위기에 빠졌음을 시사합니다. 이 속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얼마나 영적회복이 절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그날들의 사건들’을 다시 조명하고자 역대기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 [2] 역대기의 구조와 메시지

1. 1-9 장 - 족보: 창조~회복(아담~포로 후)
2. 대상 10-대하 9 장 - 통일 왕국: 다윗과 솔로몬 통치
3. 대하 10-36 장 - 분열왕국에서 유다 왕들의 통치

동일한 역사를 다루면서도 조명의 각도를 다르게 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하 7:14**에 나타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진정한 회개, 겸비한 자세, 간절한 기도, 주님(의 얼굴)을 구함이 삶에서 회복되면 소망과 빛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비한 자세를 보여서 회복된 (나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박 정치를 했던 르호보암(대하 12 장), 므낫세(대하 33:10-13)같은 자들입니다. 누구도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역대기가 주는 교훈**

예배하는 공동체의 중요성: 이스라엘은 아직도 선택 받은 언약의 백성들인가? 이것에 대한 저자의 역점은, '성전재건과 예배 공동체를 이루시지 않았는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고생과 황폐함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힘들고 불편한 일에 놀리면 삶의 주어진 것들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짓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가 없을까요? 옆에 묵묵히 격려하고 지지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주일이면 누구나 초대되는 예배가 있고, 또 나누고 들어줄 목장 모임이 있고,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고 모른 척하시고, 내 삶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맞을까요?

공동체의 예배, 나눔, 친교, 섬김이 있다는 것은 새롭게 눈을 뜨고 보면 소중한 선물입니다. 역대기에서 가르쳐주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삶의 질(quality)은 내가 그날들의 그 사건/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암울했지만 자기들의 예배 공동체의 시작과 과정을 새롭게 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눈을 뜨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은혜의 차원의 일입니다. 그들은 귀환 후 성전을 짓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적 축복이 새로운 가치로 드러나 새로운 눈을 가져야 했습니다.

**<밋음>**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후 새롭게 공동체를 출범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때 그들에겐 역사와 미래를 보는 새로운 눈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재해석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 공동체의 중요성이 드러나 새 소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모두 예배하는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임을 기쁘게 보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역대기가 긴 역사의 서술을 다시 기록한 이유를 이스라엘의 포로 후 상황을 참고하면서 말씀해 보십시오(단답형 질문이 아님). 그들은 어떤 정신과 소망과 주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위 글과 참고서적이 있으면 활용 해보세요.)
2. 나는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나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기반 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3.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